



①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생전 집무실에 설치된 지관 스님의 추모모. 매월 초하루·보름 연구원은 정기추모다례를 봉행한다. ②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연구실 중 하나의 금련실. 연구원은 백련, 청련, 홍련 등 4개의 실을 운영중이다. ③ 지관 스님의 유작 <가산불교대사림>. 향후 8년을 이어갈 대작본사다. ④ 연구원 서재한권의 지관 스님 문집 자료.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연구원은 이를 한데 묶어 전집으로 발간한다. ⑤ 지관 스님의 보따리. 스님이 항상 지니고 다니며 원고작업을 했다.

# 수행·학문 사상·업적 스님이 남긴 모든 것, 한데 모은다

### 지관 스님 1주기...추모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2012년 1월 2일, 당대 최고 학승이며 율사였던 종교지도자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입적했다는 소식은 불자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스님이 적멸의 세계에 든 지 1년이 됐다. 문도와 후학들은 현재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사업들을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b79@hyunbul.com

1월 24일 찾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종로 명륜동에 위치한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1991년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건립한 곳으로 현재 20여 명의 상근 연구원들이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스님 입적 후 원내 집무실을 추모관으로 보존하고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한다. 다례제에는 원내의 스님의 제자 5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되새기고 있다. 재가 제자인 정병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장은 "정기 추모 다례제는 단순한 '상망'이 아닌 스님의 유지와 사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가산불교대사림>이 완간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산불교대사림> 편찬사업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스님의 유작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올해 국고 지원 5억 원을 받는 <가산불교대사림>은 3월 중 14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가산불교대사림>은 본책만 20권 보유본, 색인편 각 1권씩 총 22권이 발간되며, 향후 8년 간 출간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정 연구위원장은 "대사림의 한권 당 원고 매수는 2만여 매를 상회한다. 모든 원고를 교차로 검수하는 작업까지 거치면 1년에 1권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며 "이미 스님께서 관련 원고를 전부 집필해 놓으셨다. 절반전승불교학총서 <가산지관대종사전집>에 맞춰 대사림을 편찬하면 된다.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림 편찬은 한국불교뿐만 아니라 세계불교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완간되면 한국불교의 위상은 분명히 증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관 스님 저서 전집 발간

<가산불교대사림>이외에도 스님의 사상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들을 연구원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전승불교학총서 <가산지관대종사전집>이다. 전집은 한글판 40권, 영문판 16권으로 총 11부 55권으로 이뤄진다. 현재 95%가량 원고가 완료됐으며 영문 원고는 마이클 핀치 계명대 교수,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대 교수, 요한 조르겐세 호주 국립대 교수, 암준현 미시간대 교수, 페트리 울만 등의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들 영역자들은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 시절 추진했던 <한국전통사상총서>의 다자간 번역시스템에 참석했던 학자들이기도 하다.

전집 11부는 △행장록 △한국불교소의 경전대강해 △금석문 △계율 △사료 △신종 △원효찬술 △교화 △의례 △법어 △논문 등으로 구성되며, 그 안에는 스님이 연구·저술한 <불교종단발달사>, <조계종사>,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역대고승비문>, <한국고승비문총집>, <남북전육부 율장비교연구> 등의 저서와 법어, 대담, 칼럼, 논문 등이 전부 수록된다.

대사림 3월 중 14권 발간  
2020년 경 22권 완간 예정

한국불교정수 '가산 전집' 준비  
총 11부 55권 방대한 분량  
전문 교수 5명 영역화 진행

정 연구위원장은 "스님의 저술서와 논문부터 칼럼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전집을 보면 신라부터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정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만큼 스님의 연구 분야가 폭 넓고 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사부대중을 위한 서적들도 발간된다. 스님의 <신행일감>의 개정판인 <한낮에 높이 드신 등불>(가제)에는 스님의 진영, 행장, 최중인터뷰가 게재된다. 가산지관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문집 <큰스님 뵈고 싶습니다>

다)도 준비 중에 있다. 추모 문집에는 스님과 인연이 각별했던 108명의 인사가 각자 추억담을 원고에 담아낼 예정이다. 주요 인사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前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을 비롯해 이종찬 前 국정원장, 김명호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 아카이브 구축·보은공원 유지 사업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지관 스님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아카이브 사업도 진행한다. 스님의 자필원고, 일체 문서 자료, 영상 등이 한데 모아 아카이브에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지관 스님의 60년만의 고향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청하 '보은공원'의 유지도 연구원이 이어갈 사업이다. 지관 스님은 공원에 '고향방문기념비'의 비문을 직접 쓰기도 할 만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스님은 이 공원을 통해 '일체중생의 무한한 은혜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한국불교의 특별한 효 사상을 선양할 바랬다.

실제 지관 스님은 비문에서 "고향을 지키며 공동의 도덕을 선양계승해 온 여러 위대한 선조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문도회와 연구원은 올해 4차 산문을 신축하고 '보은문' 현관을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정 연구위원장은 "지난 1년간에는 스님의 선양사업을 기획하고 대사림 발간에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면서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스님의 연구원과 함께 설립한 삼학원의 강좌 등을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 "말보다는 실천...선양사업에 최선"

김정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 스님과의 인연은 1970년대 초 스님이 청룡암에 주석하고 계실 때부터 이어지네요. 스님은 내가 아는 한 최고의 학승이었습니다. 그런 스님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사진>과 지관 스님의 교류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막역지우(莫逆之友)'의 관계였다. 지난해 10월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요청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수락한 이유도 각별했던 관계가 컸다.

"생전 스님과 학술적, 인강적 교류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저는 속인이지만 마치 형제와 같았지요. 당시 故사승 수 통국대 교수와 셋이 주로 만났는데 당시 스님은 '셋이 만나면 마음 편해진 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원이 어려울 때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저를 추천했다고 하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이사장이 현재 가장 신경을 쓰는 것도 <가산불교대사림>의 완간이다. 이를 완간하는 것이 스님의 큰 유지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이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대사림 편찬입니다. 이는 고려대경 이후 한국불교계의 가장 큰 역경불사입니다. 대사림 완간은 쉼없는 연구원의 영광이고, 조계종의 업적이며 민족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는 작업입니다. 현재 전 연구원이 매일 불철주야 편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밖에 상(相)을 내지 않고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항상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스님께서 열반 한지 1년여가 됐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경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연구원은 그때 모든 것을 이야기 할 것입니다."

향후 김 이사장은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대사림 편찬을 위해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쓸 방침이다. 이번 국고 지원도 김 이사장의 발품이 가져온 결과이다.

"지관 스님이 일궈오신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스님의 유작인 <가산불교대사림>과 다양한 선양사업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중일 기자

## 믿음과 정직의 산실!

###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연 등 할인가

- 바림등 (6cm)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 (8cm)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 (10.5cm) @5,500원 (24개이상)
- 바림등 (13cm) @11,000원 (12개이상)
- 바림등 (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등 (6cm)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 (8cm)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 (10.5cm) @5,500원 (24개이상)
- 공단등 (13cm) @11,000원 (12개이상)
- 공단등 (20cm) @35,000원 (4개이상)
- 공단·바림 일반등 (30cm) @80,000원
- 공단·바림 칼라등 (30cm) @90,000원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림등**  
빨강, 연분홍, 진분홍, 주황, 보라, 흰색

**청사초동**

**공단·바림 칼라등**

**비닐만월등**  
파랑, 진분홍, 노랑, 분홍, 초록

**한지칼라등지 완성**  
8cm 30,000원  
10.5cm 40,000원  
\*1류등당 50개를 만들 수 있음.

**봉촉카드[21종]**  
@ 300원 (1,000장 이상)  
구성: 봉투, 내지 인쇄포함  
내지: 18.5x25.6cm

**LED전구**  
110,000원 [국산]  
1BOX: 50개  
색상: 촛불색/주황색

**막대제등램프(분홍/연두)**  
100개이상 @4,500원  
정가 6,000원

**연일(일반)/바림/신칼라(천)**  
5,000원 / 7,000원 / 30,000원  
연일/진분/노랑/주황  
빨강/녹색/흰색

**PVC등표**  
12,000원 (100개)  
크기: 8.5x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탈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